

MICE산업을 통한 KORAIL의 전략적 수익 창출 방안 연구
A Study on solution for strategic profit of KORAIL via MICE industry
구속경† 고은희** 이인경***
Ku, Suk-kyeong Ko, Eun-hee Lee, In-kyeong

ABSTRACT

G20 summit is expected to be held in seoul this coming Nov. 2010 which is a typical case of international meeting in MICE industries have been rising in the world and can be considered as a new marketing paradigm. since IMF crisis in 1997 in korea via financial leeman turmoil in the wall street caused ruins of the middle class as financial resources of korea. it's like saying that we need to look for another practical marketing way not mass marketing any more to get through this comprehensive financial crisis.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find out new marketing way using MICE industires

1. 서 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가계의 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2008년 리먼사태를 통해 본격적인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극단적인 수입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당시의 파장은 2010년 5월인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몇 차례의 금융 위기, 중산층의 몰락으로 실질적인 구매력 저하는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영업수익의 저조는 궁극적으로 철도 공사라는 명맥을 겨우 유지할 수 있거나 상황이 더 기울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다.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그 동안 공공성을 강조해 일반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열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 고 부가가치의 상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저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8% 정도로 공로 분담률 75.4%와 비교했을 때 수치 차이가 현저히 큼을 알 수 있다. (표1, 그림1 참조) 수송분담률을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준 수치인 15%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선로 개량공사 지원 등의 親철도 정책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코레일이 더 이상 현재 고수하고 있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매스마케팅에 주력해서는 신규 수요 및 고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적 기업들은 좀 더 높은 부가가치의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이미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가동 중이다. 코레일 역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을 타겟팅으로 하여 프레스티지 마케팅 등을 적극 이용, 성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뽑힌 MICE 산업을 통해 고급 유효 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고수익창출을 이루어내기 위한 솔루션을 생각해보려 한다. 이는 KORAIL의 향후 추진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구속경 : 비회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글로벌 매니저
E-mail : pinkzuki@korail.com

TEL : (02)3780-5584 FAX : (042)615-4915

** 비회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글로벌 매니저

*** 비회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글로벌 매니저

표 1. 통계표명 : 국내 여객·화물수송량 및 분담율
 [단위 : 여객(천인/년), 화물(천톤/년), 분담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객	철도	수송량	894,620	921,223	950,995	969,145	989,294	1,018,977
		분담율	7.3	7.6	8.1	8	7.8	7.8
	지하철	수송량	1,982,192	2,033,411	2,020,360	2,079,961	2,090,290	2,141,872
		분담율	16.1	16.7	17.1	17.2	16.6	16.5
	공로	수송량	9,404,764	9,169,559	8,801,839	9,014,747	9,518,760	9,798,410
		분담율	76.4	75.4	74.6	74.5	75.4	75.4
해운	수송량	10,336	10,648	11,099	11,574	12,634	14,162	
	분담율	0.1	0.1	0.1	0.1	0.1	0.1	
항공	수송량	21,380	18,893	17,156	17,181	16,848	16,990	
	분담율	0.2	0.2	0.1	0.1	0.1	0.1	
화물	철도	수송량	47,110	44,512	41,669	43,341	44,562	46,805
		분담율	6.2	6.6	6.1	6.3	6.2	6.4
	공로	수송량	565,456	518,856	526,000	529,278	550,264	555,801
		분담율	74.6	76.4	76.5	76.6	76.9	76.2
	해운	수송량	145,327	115,636	119,410	117,805	120,079	126,964
		분담율	19.2	17	17.4	17.1	16.8	17.4
항공	수송량	423	409	372	355	316	254	
	분담율	0.1	0.1	0.1	0.1	0.1	0.1	



그림 1. 국내여객수송량 추이

2. 본 론

2.1 MICE 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MICE산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 보상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통칭하는 용어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사용빈도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개최될 G20 정상회의, 장관회담, 기후회의, 가깝게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최했던 UIC정상회담까지 세계에서 많은 국제회의들이 개최되고 있다. 정상회담의 경우 참석자들이 동행하는 인원수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300명까지로 한 번에 움직이는 인원이 많고 이 인원들의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고위급들의 회담의 경우는 고급 클래스의 고객으로 분류할 수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용이할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2005년 tourism 2015를 발표하고 2015년까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 300억 싱가포르달러(약 18조 1000억 원) 관광수입, 25만 명의 관광산업 종사자를 목표로 MICE산업 적극 육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아시아 기준 국제회의 개최수를 보았을 때 한국과는 3배에 달하는 개최건수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4 ~ 2008) [단위 명, %]

순위	국 가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건 수	건 수	건 수
1	싱 가 포 르	637	26.52	466	298	177	156
2	일 본	575	23.94	448	166	168	206
3	한 국	293	12.20	268	185	185	164
4	중 국	216	8.99	197	163	181	62
5	인 도	131	5.45	111	93	106	99
6	말 레 이 시 아	83	3.46	79	52	61	84
7	태 국	64	2.66	89	68	74	99
8	홍 콩	55	2.29	51	41	35	58
9	아 략 에 미 레 이 트	42	1.75	36	39	28	31
10	필 리 핀	39	1.62	56	25	32	28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견지해 온 우리나라에도 역시 전시회, 국제회의 등의 MICE산업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정부에서는 전시영역 2012년까지 ‘세계 10위 전시강국’ 부상이라는 비전하에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무역거래 기반 조성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육성하고 있고, 컨벤션 쪽에서는 국제회의 육성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국제회의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09년 120건에서 2012년까지 200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국제회의 주관단체에 실질적인 국제기구 방한지원, 홍보물 작성, 관광 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등의 여러 방면으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수는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고 (그림 2 참고)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유관 기관 회의 등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국제회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함께 MICE산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건수

출처 : 국제협회연합 「UIA 보고서」

또한 MICE산업은 연관 산업간 상호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대규모 장치시설을 필요로 하며 실질적인 MICE supplier로 항공 회사, 철도, 버스 회사, 리무진, 렌트카, 영상, 음향 기기 등의 연계 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지식 집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MICE 산업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가내에서 MICE산업의 차별화 및 적극 육성, 유치 노력으로 지방 컨벤션 벨트 조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모든 행사에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인 CO₂의 3R (Recycle, Reuse, Reduce)을 적용하여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국가의 녹색성장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에코레일(ECO Rail), 글로리 코레일(GLORY KORAIL) 등의 환경 친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KORAIL의 성장 concept에도 일치하고 있다. KORAIL은 녹색 철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부 차원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향후 수익 창출로 연결시킬 연계성을 찾고 이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2 KORAIL과 MICE산업의 연계방안

우리나라 MICE산업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관심의 결과로 실제 수치적으로도 국제회의 유치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림 2 참조) 게다가 향후에도 유치가능한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KORAIL의 다각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컨벤션 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치하여 국제 전시,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MICE 시장에서의 KORAIL이란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MICE산업에서의 KORAIL이란 기업의 포지셔닝을 굳건하게 하여 MICE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원천적인 수입원이며 코레일의 주 서비스 제공수단인 KTX 등의 고속열차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대중을 겨냥했던 상품에서 탈피 좀 더 고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의 개발, 제공 그리고 high quality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MICE 관광객들을 매료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상품개발 타겟팅을 국가 고위직과 일반 MICE관광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MICE 관광객들은 숙소와 회의 참가비는 소속단체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여유있게 쓸 수 있다. 따라서 요금에 대한 벽이 일반 관광객보다 낮은 편이다. 이를 이용하여 KORAIL에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KORAIL의 프리미엄 급의 여행상품인 해랑 등의 적극적인 해외 사전 홍보를 통해 국가 고위직에게는 그들의 클래스에 맞는 고급상품으로 접근하여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세계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는 MICE산업은 앞으로의 신 수익 창출 산업의 핵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은 이미 대규모 자본(외국자본 포함)을 투입하여 정부차원에서 세계 혜택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제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도 MICE산업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 고부가가치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되고 있는 바 KORAIL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기본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MICE산업을 위한 인력풀등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사전 노력에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의 개통과 서울역 컨벤션 센터가 완공되었을 때를 대비한 쇼핑, 관광, 숙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ORAIL만이 지원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찾고 전문 인재들을 육성 배치하여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곧 다가올 공항철도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non-stop으로 이어지는 서울역과 용산역이란 강력한 허브를 갖고 있다는 강점과 용산 업무 단지 완공, 서울 컨벤션 센터 등 KORAIL의 신규 수익 창출 사업의 앞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기회를 살려 KORAIL만의 전략을 세워 앞으로의 수익 창출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대전에서는 MICE alliance 출범, 제주도에서는 MICE산업 적극 육성의 방편으로 전문 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이 매우 거셀 정도이다. 실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앞으로 예정된 국제회의, 전시등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 곡선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 다음은 2010 진행될 국제회의와 유치할 지역 도표이다. 언젠가 KORAIL이 주도해서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 회의 진행, 연계 관광 진행 등을 훌륭하게 해낼 날이 오기를 바란다.

표 3. 2010년도 유치추진 주요 MICE 현황(외래객 1,000명 이상)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10년 MICE유치·개최 강화 방안 보고서

	회 의 명	개최시기	유치결정 (성공여부)	주관단체	개최장소	전체 참가자	외국인 참가자	경쟁국
1	제 27회 세계인구총회	2013년	2010. 1월 (유치성공)	(사)인구문제 연구소	부산 백스코	135개국 2천명	1천5백명	호주, 캐나다
2	2011 독일여행업협회 총회	2011년	2010.3월 (유치성공)	독일여행업 협회	대구 EXCO	1개국 1천5명	1천명	튀니지, 스리랑카
3	제9차 국제위압 학술대회	2011년	2010. 3월 (유치성공)	대한위압 학회	서울 코엑스	50개국 2,000명	1천2백명	-
4	2018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2018년	2010. 3월 (미정)	삼일회계 법인	서울 코엑스	100개국 2천5백명	2천2백명	-
5	바오젠일용품유한 공사 인센티브	2010년	2010. 3월 (미정)	바오젠일용 품유한공사	서울 또는 제주	4천명	4천명	일본, 대만
6	2013 제101차 FDI 세계치과의사협회총회	2013년	2010. 4월	대한치과 의사협회	서울 코엑스	145개국 2만명	7천5백명	홍콩, 태국

7	2013 국제간질학술대회	2013년	2010. 4월	대한간질 학회	서울 코엑스	100개국 5천명	4천명	-
8	세계성학회 총회	2013년	2010. 4월	대한성학회	일산 킨텍스	80개국 1천5백명	1천2백명	싱가포르, 푸에르토리 코
9	제 5회 세계수면대회	2013년	2010. 4월	대한수면 학회	서울 코엑스	60개국 2천명	1천2백명	-
10	2012 Gastech	2012년	2010. 4월	dmg world media (uk)ltd	킨텍스	전세계 6천명	1천7백명	일본, 싱가포르
11	세계 IT대회 2014	2014년	2010. 5월	대한정보 산업연합회	서울 코엑스	100개국 4천5백명	2천명	-
12	국제간호협회의 각국 대표자 회의 및 국제 학술대회	2015년	2010. 5월	대한간호 협회	서울 코엑스	133개국 3천명	1천5백명	태국, 대만 외 3
13	2016 세계가정의학회 총회	2016년	2010. 5월	대한가정 의학회	송도 컨벤시아	100개국 2천명	1천5백명	-
14	세계華人보험대회	2012년	2010. 5월	IMM International	미정	화교권국가 5천명	5천명	중국, 태국, 호주
15	Herblife World Team School	2011년	2010. 8월	Herbalife	미정	12개국 1만명	8천명	태국, 싱가포르
16	2016 세계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2016년	2010. 9월	대한견·주 관절학회	제주 ICC Jeju	25개국 1천5백명	1천2백명	아르헨티나
17	일기대중 인센티브	2011년	2010. 10월	일기대중	서울	1천명	1천명	일본, 유럽
18	제7차 세계소아심장 학술대회	2017년	2010. 11월	대한소아 심장학회	서울 코엑스	90개국 3천명	2천5백명	스페인 이태리 외 4
19	SKAL 월드 콩그래스 2012	2012년	2010. 11월	한국스칼 클럽	미정	전세계 1천5백명	1천명	-
20	세계자동차공학회 연합 FISITA	2011년	2010. 12월	한국자동차 공학회	미정	전세계 2천명	1천명	-
21	2016 국제치과연구학회 학술대회	2016년	2010. 12월	국제치과 연구학회 한국지부회	서울 코엑스	110개국 6천명	4천명	호주, 홍콩

참고문헌

- 1) 한국무역협회 최용민 G20정상회의 개최로 본 MICE산업의 현주소와 육성 전략 2010. 2.
- 1) MICE <http://www.travelvision.jp>
- 1)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 2)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3) 싱가포르 관광청 <http://www.stb.com.sg>
- 4) 뉴시스 사회 2010.04.26
- 5) 천지일보 2010.04.28